

한전, 대한민국 안전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한국전력(사장 조한익)은 지난 27일 고양시 킨텍스(KINTEX)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15대한민국 안전문화 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한국전력 제공>

재광나주향우회 '나주인 한마음 대축제'



재광나주향우회(회장 유덕찬)는 지난 28일 광주시 서구 제이엑스웨딩컨벤션에서 향우회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0주년 기념 '나주인 한마음 대축제'를 열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남부서 효덕지구대-광주대 업무협약



광주남부경찰 효덕지구대(대장 박병우)와 광주대학교 평생학습센터(교수 최선우)는 지난 27일 광주대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의 현장체험을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남부경찰 제공>

“도움 필요한 이웃 찾아 돕는게 진정한 기부”

연금 못받는 저소득 보훈가족 돕기 나선 최갑렬 삼일건설 회장

“뒤늦게 깨달은 게 있어요. 아무리 많은 기부가 이뤄져도 미처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는, 도움이 절실한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을 찾아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부가 필요하니까.”

광주지역 향토기업인 삼일건설(최갑렬 회장)은 지난 28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가 지난 26일 광주에 살고 있는 보훈가족 20가구에 2000만원의 위문금을 전달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번에 최 회장이 후원한 보훈가족들은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과 군·경 미망인 등 총 20명으로, 정기적으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연금’ 대상자였다.

“보훈가족임에도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건 전혀 모르고 있었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인데, 그 가족들은 생계가 곤란할 정도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는 “보훈가족에게 매년 5000만원 이상을 후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회장은 이들을 애듯하게 여기는 것은 자신도 보훈가족이기 때문이다. 광주에서 공군 준위로 근무하다가 순직된 고(故) 최병관씨의 장남이다.

2월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가입

문화·장학사업 등을 4억 지원

기업·단체 나눔 참여했으면...

그는 지난 2월 1억원 이상을 개인 명의로 기부해 아너소사이어티 회원(광주 23호)이 되는 등 올해만 광주시 문화바우처 사업과 광산구 투게더 나눔문화재단, 고려인마을, 광주지검 한마음장학재단 등에 4억원 상당을 기부했다.

아너소사이어티 가입 이후 곧바로 ‘삼일문화재단 장학회’를 설립해 매년 5억원 이상 기부활동을 약속하는 등 끊임없는 ‘나눔’을 실천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1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장남의 역할을 해왔던 그는 29살 때 전공도 아닌 건설 사업에 뛰어들었다. 사업을 위해 손에 들고 있던 돈은 고작 100만원. IMF라는 위기 속에서도 지금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주변과 지역민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



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최 회장은 “20대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50살이 되면 남들에게 받은 도움을 꼭 베풀어

야겠다고 다짐했다”며 “막상 사회원활동 시작하러니 후원기관이나 방법, 절차 등을 몰라 당황한 경험이 있다”고 회상했다.

후원의 손길에서조차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숨은 후원대상자’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것도 앞서 기부를 마음먹고도 방법을 몰라 당황하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김집이’ 역할을 하고 싶어서다. 후원대상자나 기부내용 등을 일부러 숨기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다.

그는 또 예술인에 대한 지원에도 애감이 없다.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불리는 광주의 유능한 예술가들이 마음 놓고 작품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작업실 신축과 개·보수 등 올해만 2억원 상당을 지원했다. 지역출신 예술가들이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광주가 진정한 문화예술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향토기업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향후 2~3년 내에 광주 도심에 작은 미술관을 만들고 지역의 예술가들에게 무료로 대관, 창작활동을 위한 발판을 만들고 싶다는 꿈도 구상하고 있다.

최갑렬 회장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를 보면서 지역 기업이나 단체들이 자금을 받아 나눔에 참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hboxer@kwangju.co.kr

‘소록도의 손녀’ 대한민국 인재상 받다

고흥 녹동고 2년 오윤 양

오윤(17·고흥 녹동고 2년)양은 지난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인재상을 받은 뒤 “학교도 알리고, 지역도 조금이나마 알릴 수 있어서 더 좋다”고 말했다.

고흥 소록도에서 태어난 오양은 한센인들의 ‘손녀’로 자랐다. 어린시절부터 가까이 해와 한센인들이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친근했다고 한다.

공중보건의로 시작해 20년간 소록도를 지킨 아버지 오홍찬(47) 국립 소록도병원 의료부장의 영향이었다.

6살 때 순천으로 이사한 뒤에도 오양은 아버지의 근무지로 가서 휠체어를 밀어주고, 함께 밥을 먹으며 한센인들의 말벗이 됐다.



지난해 가족이 고흥으로 돌아오면서 녹동고로 전학온 오양은 ‘ING’라는 동아리를 만들어 본격적인 봉사활동에 나섰다. ING는 ‘인내(耐)서늘(靜) 녹동(麓) 그룹’의 일파(翼)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다. 동아리는 애초 녹동이나 소록도에 온 외국인들을 상대로 가이드를 하자는 취지로 만들었다. 외국인 안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록도의 역사, 한센인에 대한 편견·차별 등을 설명하고 한센인을 위한 봉사에 비중을 두게 됐다. 오양은 오히려 ‘소록도 사람’들에게 도움

을 받았다고 말했다.

“진절하게 설명하고 도와주는 분들한테도 도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사는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힘을 보태고 싶었어요.”

오양의 장래희망은 의사가 되는 것이다.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는데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직업이 의사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한민국인재상 광주지역 수상자는 박시현(광주과학고 2년), 배모니카(광주예술고 2년), 정원경(송일고 2년)양, 강미지(전남대 3년), 정재종(전남대 3년), 최진영(전남대학교 4년), 김미경(건강보험심사평가원)씨 등 7명이다.

전남지역에서는 강우림(목포덕인고 1년), 오윤(고흥 녹동고 2년), 이준형(여수고 1년)양, 유환수(목포대 3년), 이찬술(목포대 1년), 정솔(28)씨 등 6명이 수상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u@연합뉴스

광주전남녹색연합 후원의 밤

광주전남녹색연합(상임대표 정은진·사진)은 30일 오후 6시30분 광주시 서구 치평동 더파크리 스키아일랜드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연다.

광주전남 녹색연합은 이날 활동 영상 시청, 회원 축하 공연 등을 통해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한다.

광주전남녹색연합은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과 복원을 위한 캠페인, 광주북부 순환도로 백지화운동, 에너지 전환과 탈핵운동, 습지 생태계 포럼과 교육 등 다양한 녹색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전라도 장터 사람들

<5> 장성 사거리장터 생선장수 범순자씨

5일마다 열리는 시골장터는 서민들의 고유한 생활터전이자 문화의 보고다. 그런데 우리의 문화인 장터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축소, 통·폐합되는 과정을 거쳐 점차 생활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장터에서 보파리를 풀어헤치고 살아온 모정의 세월. 이런 우리 어머니들은 대한민국의 저력 그 자체다. 그들은 보파리 장사로 자식을 키우고 가르쳐

젓갈·빵·떡에서 생선까지 ... ‘장돌뱅이 삶’ 48년

이 시대의 중심 일꾼으로 길러냈다. 예나 지금이나 보파리 속에 자식걱정을 가득 담고 살아온 모정의 세월은 대한민국을 바꿔 놓은 ‘엄마의 힘’이다.

장성군 사거리장터 범순자(75)씨도 그런 어머니 가운데 하나다. 19살 때 결혼해 삼 형제를 낳았으나, 남편은 일찍이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홀몸으로 아이 셋과 시어머니를 평생도록 모셔야 했다. 그녀는 27살이 되던 해 ‘떡고 살기’ 위해 고창, 담양, 장성장터 등을 돌며 장돌뱅이의 삶을 시작

했다. 장터에서 ‘술장사’ 빼놓고는 안 해본 일이 없다는 범씨는 젓갈·빵·떡·과일 등을 거쳐 지금은 생선을 팔고 있다. 그저 먹고 살려고 발버둥쳤던 그녀는 인생의 쓴맛을 달래기 위해 담배도 피우게 됐다. 그녀는 막내아들을 가슴에 묻었다. 고교 때 출가해 스님으로 살다가 세상을 등진 막내아들 생각에 여태 마음껏 웃어보일 못했다.

그녀는 지역에서 주는 ‘효부상’과 ‘장한 어머니 상’도 수상했다. 새끼들을 먹고 키우느라 ‘식모살이’도 마다하지 않았던 범씨의 가슴 속에는 오로지 자식들뿐이다.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키워온 자식들이 이제는 엄마를 챙기며 잘 살아가고 있으니 가장 큰 위로가 된다고 한다.



장터는 언제 졸업할 생각이라는 질문에 “인자 모르지라, 나이를 먹어갈수록 시골마을이 물결 풍기는 어투로 대답했다. 범씨에게 ‘위대한 장터 어머니상’을 만들어 드리고 싶다.

이수길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강인수·이규임씨 아들 평안군 이형모(광주시 교통정책과)·이말씨 딸 고운양=12월6일(일) 낮 12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S타워 웨딩컨벤션 3층 메리골드홀.

▲김태희·문영희씨 아들 동준군 진금열·윤순임씨 딸 수민양=12월6일(일) 오후 1시 광주시 서구 농성동 메종드 보네르(구 꿈의궁전) 5층 그랜드볼룸홀.

▲이승열·조미숙씨 아들 지훈군 김성중·김정금씨 딸 유림양=12월6일(일) 낮 12시 광주시 동구 용산동 삼영웨딩홀 2층 뮤즈홀.

향우회

▲재광영암향우회(회장 조성희) 제65회 정기총회 및 영암인 한가족의 밤=12월10일(목) 오후 6시 광주시 서구 마북동 아이리스웨딩홀 062-385-7800, 담당자 성민기 010-8620-4613.

동창회

▲광주자연과학고·광주농업고 총동창회 ‘송년의 밤’(회장 임희봉)=12월4일(금) 오후 6시30분 광주시 서구 송촌동 Y-웨딩컨벤션 011-633-0670.

▲포두초 43회 동창회(회장 김팔만)=12월5일(토) 낮 12시 부안군 변산면 대명리조트(양금실) 010-8885-8803.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조보규)월례회=12월5일(토) 오후 6시 광주시 동구 금강산식당 062-224-0808.

동문회

▲송원고 총동문회 송년의 밤=12월3일(목) 오후 7시 광주시 서구 마북동 베일리컨벤션 3층 연회장 문의 총동문회 사무실 062-384-7447.

▲학교법인 유은학원(광주상고·광주여상·동성고·동성중·동성여중) 총동문회(회장 전주연) 2015년도 제3차 정기이사회 및 송년의 밤=12월4일(금) 오후 6시30분 광주시 서구 농성동 라페스타웨딩홀

문의 총동문회 사무국 062-361-2680.

취업지원 및 학원비 지원 062-232-2043.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랑마루합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솔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63-0442~3.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모 상담, 입양상담 24시간, 무료 속시보호 및 안전전환 분반지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모집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서비스 대상 아동=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을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만 12세 이하) 언어발달평가, 언어발달교육(주 2회·1회 40분) 상담(무료) 광주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2-363-2963.

▲설현차문화연구원=녹차, 중국차, 홍차 등 초·중·고급반 수강생 모집 062-432-0070, 010-2602-0070.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글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 장안쪽 관리사무소연 062-512-5788, 062-262-1542.

▲리본공예 수강생=취미반, 지도자반, 창업 자격증반 수시모집 010-9853-2121.

▲자원봉사 상실프로그램 회원=인권, 환경등 주제가 있는 자원봉사 학습 및 활동, 초·중·고·대학생 등 일반시민 누구나 참여가능. 봉사활동 확인서(3시간) 발급.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7.

▲광주 장애인 문화협회원=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자 010-2727-1282.

부음

▲김오금씨 별세 유품·정회·상훈·경

선·양미씨 부친상=발인 12월1일(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이공순씨 별세 정충우(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종표·경수씨 모친상=발인 30일(월) 광주시 서구 천지장례식장, 장례미사 30일(월) 오전 10시 광주시 동구 계림동성당 062-670-0034.

Advertisement for a memorial service (상가 故人的冥福을 빕니다) with details for four deceased individual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Myukho Memorial Service.